

가나 대선결과 및 향후 전망

□ 오는 28일, 결선투표로 최종 당선자를 가늠할 전망

- 2008년 12월 6일, 2009년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대통령 및 24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가나 대선이 69.52%의 높은 투표율 속에 치러짐. 가나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0일 최종 선거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집권당 NPP의 후보인 나나 아쿠포 아도가 49.13%를, 제 1 야당인 NDC의 존 아타 밀스 후보가 47.92%의 득표를 기록, 박빙의 승부를 이루었지만 과반득표자가 없어 오는 28일 두 후보 간 최종 결선 투표를 치르기로 함.
- 12월 22일 현재 추가 검표가 진행 중인 두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총 230 의석 중 NPP가 107석을, NDC가 114석을 차지, 야당 NDC가 근소한 차이로 NPP를 추월하며 제 1당으로 올라섬.
- 2008년 케냐,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주요국의 대선이 파행으로 점철된 후 아프리카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가나 대선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으며 양당 후보 및 지지자들은 아직까지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결선투표로의 진행결과를 수긍하고 있음.

□ 선거운동 초기, 여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짐

- 2000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쿠푸어 대통령(John Kufuor, 70)은 2004년 대선에서도 승리해 현재 연임 중이며 한 번의 연임만을 인정한 가나 헌법에 따라 2009년 1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예정임. 재임 중 쿠푸어 대통령은 물가 안정 속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타 아프리카 분쟁국의 중재에 나서는 등 외부 활동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2007년 아프리카 연합(AU)의장에 선출되기도 하였음.

- 현재 총 230의석 중 128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인 신애국당(New Patriotic Party : NPP)은 2007년 12월 22일에 열린 경선을 통해 나나 아쿠포 아도(Nana Akufo-Addo, 64)를 대선주자로 선출하고 쿠푸어 대통령은 나나 아쿠포 아도의 대선 승리를 자신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함.
- 나나 아쿠포 아도는 명망 있는 정치인 가문 출신으로 지난 군부독재 기간 저항운동을 통해 가나 핵심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 2001년부터 쿠푸어 내각에서 법무장관 및 외무장관을 역임함.
- 야당인 국가민주회의(National Democratic Congress : NDC)는 존 아타 밀스(John Atta Mills, 62)를 81%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선후보로 추대, 8년만의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음. 하지만 선거운동 초기 현 대통령인 쿠푸어에게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패했다는 점과 함께 국가민주회의 내각 당시 부통령으로 인권유린행위에 가담한 전력은 그의 대선 승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였음.

□ 선거 막바지에 다다르며 혼전양상을 띠게 된 가나 대선

- 야당 NDC는 쿠푸어 정부의 부정부패 문제를 제기하고 그동안 부의 분배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표심을 자극하며 지지세력 결집에 주력해옴.
- 그 동안 가나는 안정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한 북부 및 동부지역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상존해왔음. 또한 개혁모범국가로 인정받으며 선진국의 공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 및 보건의료시설 등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도층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음.
- 무엇보다 2011년부터 가나에서 본격적인 석유생산이 이뤄짐에 따라 오일머니가 어느 정치세력에 의해 관리되어 어떤 식의 혜택으로 돌아올 것인지가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이는 올해 초 여당 우세의 관측을 뒤집으며 결선투표로 진행되게 된 주요 배경으로 작용함.

- 지난 2007년 6월, 영국석유회사인 Tullow사는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가나에서 추정매장량 15억에서 20억 배럴에 달하는 해상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함. 본격적인 생산은 2011년 말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나국영석유회사 (Ghana National Petroleum Company : GNPC)는 일산량 12만배럴에서 2년 안에 25만배럴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 향후 가나의 대외수지 및 재정수지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됨.

□ 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이 되어온 가나

- 가나의 민주주의가 아프리카에서 주목을 받아왔던 측면은 크게 세 가지에서 찾을 수 있음. 우선, 1992년 군사정권 붕괴 후 민주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이래로 지난 16년 동안 NDC와 NPP 양당이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었다는 점. 그 다음으로,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가 종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선출된다는 점. 마지막으로 지난 네 번의 대선을 중립적으로 감독,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기반을 마련해온 가나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과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꼽을 수 있음.
- 가나 국민들은 의원선거에서는 지역색을 반영하는 후보를 선출하되 대통령 선거만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후보를 지지함. 이러한 가나 국민들의 행태는 'Skirt and Blouse voting'이라 불릴 정도로 일반적인 현상임.

□ 2차 결선투표 후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

- NPP, NDC 양측 후보 모두 산유국으로 변모할 2011년 가나의 집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.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양당은 지난 케냐의 대선 후폭풍과 그에 따른 권력분점 협상을 교훈 삼아 설사 대선에서 패한다 해도 대선 후 소요사태를 유발하여 권력분점을 통해 권력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암중모색하고 있다며 상호비방을 하기도 함.
- 지난 6일의 투표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나국민들 또한 기존의 'skirt and blouse voting' 관례에서 벗어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간, 종족간 차이

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밝혀짐. 또한 총선결과 발표가 일주일 동안 지연된 배경에는 선거자 부정등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2차 결선투표 후 분쟁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.

전문연구원 정재현 (☎02-3779-6651)

E-mail : jhjung@koreaexim.go.kr